

재단 이사회, 신입이사 8명 선임

개방이사 정호스님·영담스님, 첫 비구니이사 수인스님도 선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지난 16일 제234차 이사회를 열고 총 8명의 신입이사를 선임했다.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영담스님을 비롯한 총 8명의 신입이사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개방이사로 △화성 용주사 주

지 정호스님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스님이 선임됐으며, 일반이사로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수원 포교당 주지 성관스님 △총무원 문화국장 수인스님 △오영교 총장(당연직 이사) △유광진(정치외교학) 명예교수 △전순표 총동창회장이 선임됐다. 이번 신입이사진 가운데 수인스님은 우리학교 역사상 첫 비구니 스님 이사로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선출된 신입이사는 2011년 11월 까지 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사회가 열리기 앞서 이날 오후 3시 열린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는 2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백창기 씨와 임향근 씨의 사퇴로 공석이 된 개방형이사후보로 △전 총회외장 지하스님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을 각각 선출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선임 외에도 로스쿨 관련해 법학과 교수 3명의 임용을 결정했다. 또한 로스쿨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3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되는 김교각 스님 입상 봉안 한중합동 법회에서 로스쿨 유치기원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정호스님(화성 용주사 주지)



영담스님(부천 석왕사 주지)



성타스님(경주 불국사 주지)



성관스님(수원 포교당 주지)



수인스님(총무원 문화국장)



오영교 총장



유광진 명예교수



전순표 총동창회장



로스쿨 '철야' ... 지난 달 31일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 제출을 위해 준비단이 본격적으로 신청서 작성에 돌입했다. 이번 신청서는 이달 3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본관 4층 정책회의실에서는 새벽 2시가 넘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인가 신청서 작성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후) dgupress@dongguk.edu

제40대 총학선거 파행 중선위, 후보자격 박탈 등 편파적 선거관리

제40대 총학생회 선거가 투표일을 5일 앞두고 기호 2번(현성은·국문3·신동욱·법학3)조의 후보자 격이 박탈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정평주·야간 국제통상4)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했다며 경고 2회와 주의 조치를 잇따라 내린 후 경고누적 4회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는 "선관위 회의가 특정 당과대

에만 연락을 하고, 일부 당과대에는 회의시작 10분전에서만 휴대문 문자메시지로만 회의 소집을 알렸다"며 회의진행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선관위를 강력히 성토했다.

기호 2번측은 또, "선거운동본의 자격과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은 선거시행세칙을 들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남발해 후보자격을 박탈했다"며 "특정후보를 선거에서 배제하기 위한 음모"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같은 선거파행은 선거시행세칙을 위한 양 후보간의 선거 톨미

팅 당시부터 예고돼 왔다. 톨미팅 당시 공과대에 투표소를 2개나 설치해 이중투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한편, 제39대 총학생회(회장=정형주·통계4)도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기호 2번측의 선거운동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서, 총학생회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뜻을 모아 ... 지난 13일 전순표(농학57졸) 총동창회장이 우리학교에 6억원의 기부금을 약정했다. 학교를 방문한 전 회장은 전 날식에서 "이번기금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에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만해관 리모델링 따른 불편 가중

소음·조명 문제 등 열람실 사용 불편

만해관 리모델링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만해관 열람실 폐쇄에 따라 대체열람실 마련, 중앙도서관 별관 열람실 24시간 개방 등의 후속조치가 마련됐으나 마무리 공사가 끝나지 않아 소음과 분진 등이 심해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후속 조치했으나 소음, 조명 등의 문제로 열람실 사용은 여전히 불편한 상태다.

임시열람실에서 공부할 하던 정혜연(회계4) 양은 "갑자기 조명이 나가서 다른 열람실로 옮겨야 하는 등 공사소음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도서관 대체열람실 마련과 관련해 장충문화체육센터 내 독서실 100석을 오는 12월 19

일까지 무료이용토록 조치했다.

강의실 변경따른 혼란가중 법대강의 일주일 전체 휴강

강의실 변경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불교대 학사운영실이 명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명진관 강의가 만해관으로, 만해관 강의가 문화관으로 옮겨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주의를 요망되고 있다.

한편 로스쿨 인가신청서 준비로 법대의 강의가 1주일 전체 휴강됐다. 법대 행정실 관계자는 "휴강된 강의는 보강수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하늘(법학1) 군은 "갑작스런 강의실변동으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학생 편의는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행정조치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우수장학신청 30일까지 접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2008학년도 1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우수장학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우수장학신청 메뉴에서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예전처럼 학업지도교수에게 직접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30%이며, 신청대상은 1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평균평점 3.0이상인 학생이

다. 제출서류는 장학금신청서, 사회봉사인증서이며, 평가기준은 당과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대학 학사운영실에 문의하면 된다.

사회봉사인증서는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학생경력개발원 사회봉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자동 접수 처리된다. 또한 참가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접수 처리된다.

지난 동대신문 제1451호 1면 학생자치기구선거 관련 기사 중 이윤문(법학1)을 이일문(법학1)로, 연성모(사회환경시스템공3)를 연성모(토목공3)으로 정정함니다.

한·중·일 학술심포지엄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한·중·일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는 우리학교 일본학연구소(소장=홍윤식)와 국제화추진단에서 진행한 행사로 중국 사회과학원과 일본 큐슈대학교 공동주최한 것이다.

각국의 대표자들이 기조강연을 진행하였으며, 5가지 분과를 나누어 분과별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 관련기사 5면

오는 21일 동문 초청

오는 21일 '2007 동국대학교 동문초청 COME TOGETHER with 108 Project' 행사가 신라호텔 다이너스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500여 명의 동문을 초청해 108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교육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자리이다.

23일 로스쿨 기원 법회

정각원은 로스쿨 유치기원법회를 교직원과 학생, 일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서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스님이 '로스쿨 유치기원'을 주제로 법문할 예정이다.

5월 본관 점거, 학생징계

지난 15일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사항이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되었다. 지난 5월에 불법으로 학교 시설을 점거 하고, 시설을 파손을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이다.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이동철(토목4), 현성은(국문3), 김윤권(야간정보통신4), 정의행(영화3), 윤성준(사학4)이다. 이동철 학생은 일주일의 유기정화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학생은 견책됐다.

본교-KOTRA, 학술연구 교류협약

로스쿨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과 현장교육 교류

우리학교는 15일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법과대학(학장= 이상영·법학)과 KOTRA아카데미(원장=연영철)간 학술연구 및 실무연습에 관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학교와 KOTRA 간 학

술연구 및 실무실습에 관한 교류협정은 우리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가능하도록 20명 범위에서 현장 경험 및 실무수습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용한 교수, GM위탁과제 체결

2차 R&D 과제 6만달러 지원받아

지난 8일 이용한(산업시스템공학과)교수는 GM으로부터 2차년 R&D위탁과제를 체결했다.

이용한 교수는 올해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GM으로부터 1차년 과제(RSID무선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납품프로세스를 추적하는 시스템 연구)를 부여받아 수행하던 중 지난 10월 초 디트로이

트에서 1차년 과제 중간발표결과가 좋아 2차 과제를 부여받게 됐다.

이번 2차 R&D과제는 RFID무선 인식기술을 시뮬레이션하고 일정 계획에 반영하는 연구다. 이용한 교수는 GM으로부터 1차년 R&D과제 때 6만 5천 달러를 받았고 2차년 R&D과제는 6만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신임 교수회장 정재형 교수

부회장 정응 교수 ... 교수회 비상총회서 선출



이날 교수회는 교수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회장단을 선출했다. 교수회는 위임의사를 밝힌 교수 109명을 포함해 19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출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기표와 집계 등의 투표 과정을 생략하고, 후보추천을 받아 박수를 통해 만장일치로 회장을 선출했다.

한편 감사선출은 현 감사인 황태연(정치외교학) 교수의 인기가 남아 있어 선출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비상총회를 열어 정재형(영화영상학) 교수를 교수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정응(반도체과학) 교수를 부회장에 선출했다.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모집인원 ○○명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원서접수 학기 중 모집
원서제출 SC제일은행 옆 본관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http://www.dgupress.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www.dgupress.com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TEL: (02) 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혜택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증 무료 수강,
인문 교육기관 무료 수강
※ 보호자 월 의료보험료 5만원이하인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감면

‘후보자격 박탈’ 선거 파행국면

학생회칙 위배 지적 ... 선관위 자의적 해석바탕 밀어붙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호2번 후보자격 박탈이 무효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위장)이 선거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상위법인 총학생회칙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합의기구로 운영되어야 할 선거관리업무를 위원장 독단으로 결정하는가 하면, 선거 관련 연락업무조차 소홀히 해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반응이다. 또한 선거에 개입해서 4개월 총학생회(회장=정평주·통계4)까지 나서 특정후보를 비난하고 이를 대자보에 게시하는 등 특정정파에 의한 선거기구 독점이 도를 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의적인 선거제칙 해석 = 정평주(야간 국제통상4) 중선위장은 지난 16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회의에서 경고누적으로 총후보 기호2번의 후보자격 박탈을 선언했다. 그러나 선거시행제칙의 상위법인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당선의 무효 및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고누적만으로는 후보자격 박탈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격 박탈을 위해서는 다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법과대 대의원은 “중선위장을 포함한

모든 중선위원은 기호2번의 경고가 누적되지 않았으므로 후보자격을 박탈했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음날인 17일 기호2번 후보자 박탈에 관한 공고가 부착됐다. 이는 명백히 상위법을 위배한 것으로 후보자 박탈에 관한 건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15일, 징계관련 중선위 회의소집을 위해 대의원장들에게 약 15분 전 문자메시지로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못하자 “회의소집이 어려울 시 중선위장의 결정에 따른다”는 제칙을 적용한다”며 독단적으로 모든 사안을 결정했다. 이에 일부 대의원장들은 “회의의 진행여부는 최소한 하루 전에 통지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회의를 성사시키지 않으려는 중선위장의 술수”라고 규탄했다. 상대 선거운동의 세칙위반에 관한 이의제기는 기호2번이 지난 9일 처음으로 했지만 이 당시 중선위장은 중선위를 소집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는 기호1번이 기호2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자, 즉시 경고조치를 내린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이에 중선위장은 “되도록 경로나 주의 없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 내린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중선관위 소집에 관한 절차

무시 = 기호2번측의 유인물 무단 배포에 관해 중선위를 소집해 징계여부를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평주 중선위장은 일부 대의원들에게만 전화로 징계 여부를 확인해 결정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과대 대의원장과 사과대 선관위장은 “전화로 진행하는 것이 무슨 회의냐”며 회의 소집을 강조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진행했다. 또한 불교대, 이과대, 법과대, 사과대, 경영대, 생자대, 공대, 정산대 대의원에게만 전화했음 뿐 법과대, 사범대, 예술대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락을 받지 못한 사범대 대의원은 “연락조차 안한 구성원이 있는데 어떻게 ‘중선위 회의’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징계절차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선위장은 연락을 받지 못한 대의원장들로부터 “일부만 참석시켜 중선위 회의결과를 조작하려는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후보자 정책에 관한 학생들의 알권리 침해 = 중선위는 정책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정책자료집을 아직까지 발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선위장은 개인사정, 인쇄소사정, 내용수정 등과 같이 다양한 이유로 말을 바꿨으며 자료집 발간을 미뤘었다. 또한 동대신문과 DUBS가 함께 주관해 지난 16일 가질 예정

이었던 총후보자정책토론회에 대해 “중선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후보들에게 확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토론회에 참여하려던 후보자들은 결국 중선위장의 확답을 듣지 못하고 토론회는 무산됐다. 이처럼 중선위는 학생들에게 선거의 내용과 후보들의 정책을 충실히 알려 선거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들로 학생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중선위장으로서는 의무소홀 = 중선위장은 선거 유인물 검인을 하는 작업에 소홀해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일례로 총학생회 기호2번 선거본부 측은 검인을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연락도 받지 않아서 매번 몇 시간씩 총대의원실 앞에서 기다렸다. 또한 중선위장은 지난 주말부터 총후보선거본부 측과 일부 대의원장들의 선거관련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처럼 중선위의 파행적인 선거운영으로 이번 선거는 특정후보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선거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선거의 독단을 보는 듯 하다”며 선거의 적법성에 대해 규탄했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비키십시오” ... “후보자 자격 박탈이라니요...” “저는 중선관위원입니다, 비키십시오” 지난 16일 저녁 후보자격 박탈 결정에 따른 기호2번 선거운동원들과 정평주 중선위장의 도돌이표식 대화가 30분간 지속됐다. <출처> dgupress@dongguk.edu

동계 HRDP취업캠프 ... 50명 선발 실무교육

2007 동계 HRDP(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취업캠프가 다음달 26일부터 3박 4일 간 개최된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에 앞둔 취업생들을 대상으로 인사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취업성공에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참가접수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 신청자는 자기소개서를 지참하여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와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총 50여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자는 다음달 4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2007 동계 HRDP(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취업캠프가 다음달 26일부터 3박 4일 간 개최된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에 앞둔 취업생들을 대상으로 인사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취업성공에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참가접수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 신청자는 자기소개서를 지참하여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와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총 50여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자는 다음달 4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매경, 생협에 PDP 5대 기증 ... 상록원 설치

매일경제가 우리학교 상록원 식당에 PDP40인치 텔레비전 5대를 기증했다. 생활협동조합(이사장=박상진·생명화학공학) 측은 “이용자수가 많은 점심시간대에 매일경

제mbn방송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기증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텔레비전은 3층 교직원식당에 3대, 1층 학생식당에 2대가 지난 17일 설치됐다.

인전무대

양치기 소년의 후예들

○...총학생회 후보자들 양치기 소년 후배라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예정됐던 총후보들의 토론회가 6시간 전 후보들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산됐다고.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했던 주제측의 허탈함보다, 취소한 후보측 변명이 더 허탈하다는데. 토론회 장소인 교육방송국의 스튜디오가 폐쇄적이다, 선관위 허락이 없어 징계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해 대답도 주지않은 더욱 어이가 없었다고. 이에 본 회전 무대자 알, “거창한 공약은 잘 지킬수 있고 사소한 약속은 지킬수 없네!”

혹시 너도 △번 후보 편?

○...동네 놀이터도 아닌데 유치한 놀이기구 난무하는 곳이 있다면... 이유인 즉, 최근 우리 학교의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선거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멍들고 있다고. 상대방 후보 비난이 지지하는 후보에 누워서 침 뱉기가 되진 않을지. 이에 본 회전 무대자 알 “아니 맨 끝쪽에 억지로 피우는 연기”

너도 나도 한석봉

○...중앙도서관에서 한석봉과 석봉애미가 재연된 참이라는데. 사연인 즉, 만해관 열람실 공사로 중도에 테이블을 배치했으나 조명 없는 곳에 설치된 곳이 있어 학생들이 어두운 곳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퍼즐맞추기식 좌석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 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 무대자 알, “한석봉처럼 어둠속에서 글을 쓰면 저도 성적 좀 오를까요?”



김치로 나누는 마음 ... 지난 17일, 우리학교 참사랑 봉사단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13개의 중구사회복지단체가 함께했으며, 이날 담긴 김치는 중구 저소득층 약 1270세대에게 전달된다. <출처> dgupress@dongguk.edu

총학감사 무산위기 ... 총대 직무유기 ‘비판’

‘자료분실’ 이유 1학기 감사 못해 ... 총학 견제 ‘유명무실’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1학기 결산 감사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총대의원회(의장=정평주·야간국제통상4)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계속적인 감사지연에 대해 정평주 총대의원장은 “총학생회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감사 자료를 분실했다”며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감사제칙에 따라 정기 감사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에 열렸어야 할 상반기 감사는 물론, 이를 대신 해서 열릴 예정이던 부정기 감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정평주 총대의원장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대의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에 당사 자료를 받기로 했으나 바빠던

가능하다. 지난 해, 야간대학 총학생회장이었던 정평주 총대의원장은 기존 총대의원회가 기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회칙에 따라 제 시기에 감사특별위원회와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총대의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출마동기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둘러싼 총대의원회의 미미한 역할이 답습되고 있다. 이 같은 감사지연에 대해 ‘학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중립과 견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총대의원회의 본 성격을 잃는다.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그 존재가치인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1학기 결산 감사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총대의원회(의장=정평주·야간국제통상4)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계속적인 감사지연에 대해 정평주 총대의원장은 “총학생회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감사 자료를 분실했다”며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감사제칙에 따라 정기 감사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에 열렸어야 할 상반기 감사는 물론, 이를 대신 해서 열릴 예정이던 부정기 감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정평주 총대의원장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대의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에 당사 자료를 받기로 했으나 바빠던

동약로에서

‘화통’ 하게 ‘소통’ 합시다

“어, 뭐야? 만해관 열람실 못 쓰잖아! 어디서 공부하란 말이야!” 만해관 열람실 공사로 헛걸음친 학생의 분노에 찬 목소리다. 본 기자가 열람실 폐쇄 공지를 읽던 중에 몇 명의 학생이 만해관 열람실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지난 8일 1층 만해관 열람실 앞에는 이러한 공지가 붙었다. ‘9일 만해관 열람실 2, 3층을 폐쇄하고 10일 만해관 열람실 1층을 폐쇄합니다’ 2,3층 열람실 폐쇄를 불과 하루 앞두고 붙인 공지였다. 공지가 늦어짐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홈페이지 메인에는 지난주 내내 공지되지 않았고 CS광장에만 열람실 폐쇄에 따른 대안만 공지돼있는 상황이다. 캠퍼스 기획단의 한 직원은 “열람실 부재에 따른 대체방안을 마련해 함께 공지하려고 했는데 부서 간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공지도 늦어지게 됐다”며 “이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홈페이지 공지하는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혜연(회계4) 양은 “임시열람실 폐쇄에 대한 첫 공지도 A3용지로 돼 있어 찾기 힘들었다”며 “학교 측의 명확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해관 열람실 공사는 로스쿨 유치의 필수조건인 법학전문 도서관 건립을 위한 것이다. 로스쿨 유치를 대학 사회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학교당국의 입장에서는 학교발전을 위해 법학전문도서관 조성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점은 학생들 또한 일부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학전문도서관 조성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공지는 학생들 입장에서 자칫 밀어붙이기식 일방행정이자 밀실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공사에 따른 대안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지난 4월 학내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오영교 총장은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 구성원 모두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우리 학교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원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그런데 기본적 소통인 공지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성원의 생각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소통은 갈등을 야기하는 수단 이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다. 학교 당국은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로스쿨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격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학생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에 만족시키는 CS경영 선도대학이 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1학기 결산 감사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총대의원회(의장=정평주·야간국제통상4)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계속적인 감사지연에 대해 정평주 총대의원장은 “총학생회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감사 자료를 분실했다”며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감사제칙에 따라 정기 감사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에 열렸어야 할 상반기 감사는 물론, 이를 대신 해서 열릴 예정이던 부정기 감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정평주 총대의원장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대의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에 당사 자료를 받기로 했으나 바빠던

성매매 생존자 간담회

28일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성매매생존자간담회’가 오는 28일 6시 다향관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여성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이심열·가정교육)내 양성평등상담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실제 성매매 현장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이 초청된다. 선착순 40명으로 신청자를 받으며 본관 2층 여성커리어개발센터로 방문접수해야 한다.

‘농구대잔치’ 고대와 첫경기

‘2007농구대잔치’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총 13개 팀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학교는 B조에 편성돼 고려대, 상무, 성균관대, 연세대, 조선대와 경기를 치르게 된다. 오는 27일 오후 5시 40분에 고려대와 첫 경기가 있을 예정이다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이창희·강현경 단일후보

연구특목제문제 해결 △행정지원실 재설치 △학우들과 문자메시지 통한 홍보 및 1:1 커뮤니케이션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학원 총학생회장 후보 이창희·강현경 조는 “至誠感天 & 知性感天의 ‘지성이면 산천이 무너진다’는 모토로 원우들을 위해 지성감전을 실천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투표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학술문화관, 동곡관, 원흥관, 학림관, 과학관에서 이뤄진다.

언론정보대학원 류기용·이희석 동문

각각 대통령 표창, 문광부 장관 표창 수상 류기용 원생은 대통령표창을, 이희석 동문은 문화관광부장관표창을 받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0일(화) 오후 5시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장에서 진행된다.

언론정보대학원 류기용·이희석 동문

각각 대통령 표창, 문광부 장관 표창 수상 류기용 원생은 대통령표창을, 이희석 동문은 문화관광부장관표창을 받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0일(화) 오후 5시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장에서 진행된다.

나뉘는 동국의 일꾼

○...가을에 물든 아름다운 동악에 반갑지 않은 낙엽들이 쌓인다는데. 알야본 즉, 학생회장 선거로 배포한 선거 선전물들이 따로 수거하는 이 없이 바닥에 떨어져 쓰레기가 된다고. 선거운동원들은 유세하는 그 열정만큼 깨끗한 캠퍼스를 위해 서로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이에 회전무대자 “흩날리는 선전물, 추락하는 지지를”

동아리연합회 선거 28일

동아리연합회회장선거에 정 김기현(컴공3), 부 박효선(경영3) 조가 단일후보로 입후보하였다. 선거는 28일 시행된다. 69개 동아리에서 각각 3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투표한다

학생자치기구 후보자 인터뷰

총대의원회

공명정대한 총대 건설



권본훈(국교4)

- 총대의원회의장으로 입후보한 이유는.
= 총대의원회의의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감사와 선거이다. 하지만 이번 총대의원회에서는 1, 2학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선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다. 후보로 출마한 나조차 선거공고문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학교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다. 총대의원회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고 총학생회 견제기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총대의원회의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할 사업은.
= 가장 기본이 되는 총대의원회의의 역할이 감사와 선거이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철이 다가오자 대의원장이 없는 단과대에 대해 급하게 선관위원장을 세웠다. 때문에 중선위를 선거제도에 맞게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 선거든지 감사든지 1년 내내 준비를 거쳐 철저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본다. 감사 진행결과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밝힐 것이다. 과의 경우도 회계장부를 제대로 적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필요하다면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즘은 능력이 없어도 투명하고 깔끔하기만 하면 지지분한 것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다. 최소한 깨끗한 총대의원회를 만들어 가고자 힘을 쓸 것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법과대

전진하는 단결 법대



정 백인혁(법학2) 부 이일문(법학1)

- 출마 동기는.
= 법과대는 로스쿨 유지를 앞두고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타 단과대 학생 대표 후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 군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 법대 학우들과 내년에 들어올 우리 후배들을 위해 뛰어 보고자 출마 결심을 세웠다. 또한 법대는 입학 초기부터 많은 정원수의 학생들이 학회 중심으로 나뉘져 서로간의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꼈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대 학우들의 통합과 단결을 위해 함께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주요공약은.
= 가장 먼저 로스쿨 준비에 따른 수업과행과 그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학교 측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공 최대학점을 18학점에서 21학점으로 늘려줄 것과 전공과목의 계절 학기 증설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법대 전체 학생들의 친목도모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법대만의 야유회를 진행하고, 내년에 들어올 08학번 후배들의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 힘을 쓸 것이다.

또한 학생 복지를 위한 노력으로 법대 학우들을 위한 비오는 날 우산대여와 핸드폰 무인 충전기를 비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법대 홈페이지 활성화와 수업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운영할 것이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사범대

다시 뭉치는 자주학림



정 경태(국교3) 부 고승진(교육2)

- 이번 선거 출마 이유는.
= 올해 사범대는 비대위 체제로 학생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한 예전에 비해 사범대 공동체 문화가 약해져 사범대 내 7개 과의 구심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학생회 집행부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입후보하게 되었다.

- '학우들과 점 '뽕뽕' 당 학우 속으로!' 라는 선거 모토의 뜻과 구체적인 공약은 무엇인가.
= 사범대 학생들의 예비교사로서의 도약을 돕기 위해 '학우들과 점뽕',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뽕뽕 학우 속으로' 라는 모토를 정했다. 공약을 만들 때에도 '소통'과 '임용고사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대부분 사범대 학생들의 목표가 선생님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 학생회에서 임용고사 준비를 돕지 못했다. 학생회가 교육학, 전공 정기 무료 모의고사 지원, 교육학, 논술 특강, 인터넷 강의 무료 신청 등을 마련해 임용고사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또한 학기의 시작과 끝을 학생들과 함께 하고자 개강 중강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학생회가 룸바니, 학림관 로비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학생회'를 만들겠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학생들과 호흡할 것이다. 그 외에도 등록금 문제 해결, 시설환경 개선 및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불교대

시대와 함께 하는 불교대



정 구자현(인철3) 부 홍대용(인철4)

-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 불교대는 특수한 대학이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기에 불교라는 특수성 살려 학문적 연구만이 아닌, 현실에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살려나가도록 돕고 싶다. 또한 이번에 사회복지전공이 생기는 것과도 관련해 불교대만의 특수성을 생활에서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 구체적인 공약은 어떠한지.
= 각과 특성에 맞는 스터디 활성화, 소모임 연대강화, 취업간담회를 공약으로 세웠다. 스터디나 소모임 공약은 불교라는 학문이 신입생이나 일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낯설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시한 것이다. 스터디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전공을 어떻게 실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학문에 적용해 수용 가능한지를 알 수 있도록 공부해 볼 예정이다.

또한 불교대 학생들에게 취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알려는데 의의를 두는 취업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불교대 나오면 스펀만 되는 것이냐고 사람들은 물어오는데 인도철학과 같은 경우 게임회사에 취직하는 선배들이 많다. 인도철학과 학문 자체가 신화 등과 관련이 많아 미디어, 영상 분야와 연계하기 좋을 때문이다. '아바타'라는 말을 개발해낸 것도 우리학과 선배다. 이러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을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생명과학대

발로 뛰며 호흡하는 학생회



정 리인호(생물3) 부 심선희(식품자원경제3)

- 출마 동기는.
= 내년부터는 생명자원과학대학과 이과대학 생명과학과가 생명과학대로 학제 개편된다. 올해 이과대학 부학생회 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우들에게 한번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생명과학대의 초대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하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학생회, 학교 측이 내세운 BT특성화 전략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생회가 될 것이다.

- 구체적인 공약은 무엇인지.
= 풍년제등 기존의 생명자원과학대 축제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중 하나가 생명과학대만의 Bio Night 축제다. 또한 해화관의 낡은 락커를 교체와 휴게실 가습기 설치를 통해 학우들의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환경 개선을 가장 큰 목표로 해화관 열람실 공간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쓰겠다.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는 학사 행정서비스 및 기타 질문에 대한 1:1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장학금 확충을 위해 현인 총동창회장 전순표(농학57졸) 세스코 회장과 연계해 생명과학대 학생들을 위한 외부장학 유치를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이처럼 직접 발로 뛰며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예술대

반짝이는 600명의 별과 함께



정 김용진(영화3) 부 정의행(영화3)

- 이번 선거 출마 이유는.
= 올해까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 중심의 예술대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업을 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 데 뭉칠 수 있는 예술대를 만들어 보고자 출마했다.

- '가슴에 별을 품어라' 라는 선거 모토의 뜻은?
= 별은 600여명의 예술대 학생들의 희망을 뜻한다. 이는 학생들의 희망을 학생회가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주자고 노력해 학생 중심의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 이번 문화관 증축으로 예술대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 여러 전공 수업이 휴강되고 미술학부 학생들은 작품이 손실 되는 등의 피해가 컸다.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일부 이뤄졌지만 학생들이 받은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피해를 받은 것은 예술대 학생들이지만 문화관 증축을 통해 생긴 공간은 예술대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학교 측에 건의해 예술대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이나 작업실로 만들고 교육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상설 대자보나 소식지 발행을 통해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겠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불만, 건의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문과대

변화의 문과대 선도



최재희(철학4)

- 이번 선거에 입후보 하게 된 이유는.
= 올해 문과대학은 힘든 1년을 보냈다. 학제개편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울분을 터뜨렸고 학교에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거능성을 하기도 했다. 지난 1년간의 아픔을 씻고 2008년에는 즐거운 문과대를 만들고 싶어 입후보했다.

-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먼저 명진관을 변화시킬 것이다. 명진관 열람실의 낡은 책걸상을 교체하고 전신거울을 필요로 하는 문과대 학생들을 위해 전신거울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계산관을 개선할 것이다. 기존의 계산관은 개수도 적고 크기도 작아 공지사항을 알리기에 부족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공지사항을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계산관 개수를 늘리고 크기도 키워 공지사항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힘쓸 것이다.

두 번째로 우산대어 사업을 펼쳐 비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또한 개선될 계산관에 명진관 강의실 시간표를 붙여 빈 강의실을 열람실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과대 통합 사이트를 구축해 학과별로 개성이 강한 문과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힘쓰겠다. 문과대 통합사이트는 내년부터 시행될 학부제의 혼란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정동훈 기자
gd1226@dongguk.edu

공과대

공대생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정 이형근(생명화학공3) 부 연성모(토목공3)

- 단과대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동기는.
= 공과대학 학생들이 400만 원이 넘는 비싼 등록금을 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등록금 내역 중 실험비와 자재비가 포함돼 비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고등학교시설만도 못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단과대 건물의 학습 환경에 비해 공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원흥관 학습 환경은 특히 열악하다. 공대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이 받는 혜택만큼은 똑같이 받게 해주고 싶어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게 됐다. 공대생들의 저력을 한데 모아 보여주고 싶다.

- 공약 사항과 앞으로의 실천 방안은.
= 전 강의실의 낙후시설을 전면 교체하겠다. 공대 수업은 대부분 빔프로젝터를 사용하는데 램프가 오래돼서 색감표시가 잘 되지 않아 수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온풍기가 설치된 다른 단과대 건물과는 달리 원흥관 강의실에는 온풍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라디에이터 하나로 겨울을 나야한다. 온풍기 설치를 위해 학교 측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딱딱한 나무의자와 좁은 책상도 전면 교체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그 외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공약사항은 공대 컴퓨터 벤치 교체 및 확충, 시험기간 야식 지원 행사, 화장실 리모델링 추진 등이 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dongguk.edu

이과대

학생복지를 최우선으로



정 김철(통계3) 부 남혜미(화학2)

-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 하게 된 이유는.
= 이과대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입후보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이런 생각 때문에 즐거웠다. 그래서 주저없이 이과대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게 됐다.

- 구체적인 공약은 어떤 것인지.
= 문화 사업부분에서는 이과대의 밤, 학술제, 이과대 가요제 프로그램, 체육대회 등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과대의 밤 행사는 등문과 교수,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학술제는 각 과의 특징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회에서 농구공과 배드민턴라켓 등의 물품 대여사업을 해 이과대 학생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현재 명진관 2층에 있는 컴퓨터실이 연장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과 학생회실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겠다. 명진관 책상은 다른 건물의 책상에 비해 좁고 추위에 노출돼 있다. 책상을 교체해 강의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

-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친근한 이과대 학생회를 만들겠다. 이과대 파이팅!

정동훈 기자
gd1226@dongguk.edu

정보산업대

초심 잃지않는 학생회



정 조성호(정보통신공3) 부 인재복(정보통신공2)

- 주요 선거공약과 실천방안은.
= 정보산업대학과 공과대학이 학제개편으로 통합되면서 혼란스러워 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혼란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문화관 건물 복도마다 건의함을 설치해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건의사항은 대차보환식으로 만들어 여러 학생들이 댓글을 달 수 있게 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기적인 '과팅'을 주선해 같은 학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와 선·후배까지 인맥을 넓힐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 인맥이 중요한 요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친구도 되고 인맥까지 쌓을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학생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택배수령 서비스, 정보문화관 여자화장실 경보기 설치, 남자화장실에는 블라인드 발을 설치할 계획이다. 혼자 사는 학생들의 경우 택배수령을 제 때 하지 못해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 어떤 학생회장·부회장에 되고 싶은지.
= 내세운 공약만 실천하는 학생회장이나 학우들을 생각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학생회장이 될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dongguk.edu

기호 1번 주요 공약 분석

함께하는 학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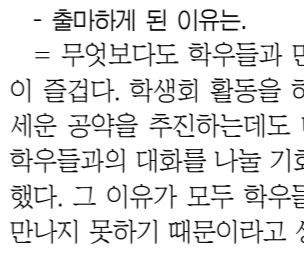


정 김현명(신방2) 부 김해정(신방3)

1. 동국관 곳곳에 책 반납기 설치
동국관에서 중앙도서관까지 책을 반납하러 가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동국관 곳곳에 책 반납기를 설치하겠다.
2. 학생들의 복지와 학교문제 해결 우선
대외적인 사회문제보다는 사과대인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사과대의 문제와 학내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
3. 현실적인 대안 찾기
학교와의 대화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
4. 타 단과대의 연계를 통한 각종 행사 주최
단과대 간의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체육대회 및 축제를 함께하며 실질적인 화합의 방향을 모색하겠다.
5. 공간문제 해결
개방형 독서실 금융사랑에 유리벽을 불투명 칸막이로 대체하여 스터디룸과 휴게실을 확실히 구분하겠다.
6. 학생회 활동 전면 공개
밀실학생회가 아닌 학우들에게 개방된 학생회를 위해 학생회실 개방과 회의내용 공개제도를 실시하겠다.
7. 유명 강연자 초청
매달 각 과에 맞는 현직 유명 종사자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겠다.

기호 2번 인터뷰

사랑나:비 함께 나는 사과대



정 이은지(사회3) 부 김수현(경제2)

- 출마하게 된 이유는.
= 무엇보다도 학우들과 만나는 것이 즐겁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내세운 공약을 추진하는데도 미흡했고 학우들과의 대화를 나눌 기회도 부족했다. 그 이유가 모두 학우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학생회장이 되어 많은 학우들과 만나 그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진정 학우들을 위한 학생회를 만들고 싶다.

- 선거 슬로건과 공약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 우리의 선거 슬로건은 사랑나:비이다. '사과대랑 나' 랑 함께 날다(飛) 라는 뜻이다. 우리의 공약은 다가가는 학생회, 공간문제 해결, 복지문제 해결, 학제개편문제에 대한 대화, 마지막으로 공동체 도란도란 프로젝트까지 크게 나눠 5가지이다. 특히 도란도란 프로젝트는 삼겹살파티, 소모임 지원 사업으로 학교제에 비해 인간관계 형성이 어려운 학부제로 편성된 사과대 학우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학생회'라고 하면 선뜻 다가가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다. 친구 같은 학생회, 함께 수다 떠는 학생회, 즐거운 학생회를 만들고자 한다. 학생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의 공약을 실천할 것이다.

baessi03@dongguk.edu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갈등의 건설적 활용방안

개방적 분위기로 의사결정 참여 유도해야

적당한 갈등은 조직 활성화에 기여 ... 다양한 대화 채널 필요

오늘 날 사회 도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 집단, 국가 및 국제기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학교 내·외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에 연루되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위기상황에 봉착하여 있음을 구성원들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갈등상황을 다툼, 분쟁, 반대,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상황과 연관 짓는다. 하지만 심각한 갈등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위기인식을 고취시켜 기존에 내려온 제도와 체계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 갈등의 연원과 형태 그리고 관리하는 전략을 살펴보면서 대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현재의 잠재상황과 부정적인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우선 갈등의 여원을 살펴보면 영어 단어로는 'conflict' 한자로 '葛藤'으로 표기된다. 'conflict'에서 'con'은 'together(서로, 함께)'을 'flict'는 'strike(충돌하다)'를 의미하여 상호간의 충돌이라는 뜻을 가진다. 葛藤에서 '갈(葛)'이란 풀을 '등(藤)'이란 덩굴을 의미하여 풀덩굴과 덩굴덩굴이 서로 뒤엉킨 상태에 상호간에 감고 자라서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렇듯 단순하게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아도 갈등이란 것은 복잡하게 뒤엉켜져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갈등의 원인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만큼 제공하는 원인 또한 다양하다. 우선 개인의 심리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충족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들의 충족을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지면서 갈등에 직면한다.

조직 내부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형태를 살펴보면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 간에도 직면한 상황이 불확실하면 선호하는 대안이 상이하거나 조직의 기대하는 목표 간에 괴리가 생겨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

조직 내부에 속해 있는 집단 간에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다. 집단이 상호의존적이어도 각 집단마다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존재하므로 비대칭적인 과업 혹은 자원이 배분되면 집단 간에 긴장과 갈등이 야기된다.

따라서 조직 내부에서 개인 간 그리고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장애물들이 발생하여 정보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구성원 간에 오해를 발생시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렇듯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므로 갈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갈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갈등을 둘러싼 견해

전통적으로 갈등을 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즉, 갈등이란 조직의 장애요소로서 생산성을 저해하고 구성원 간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는 존재로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갈등은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될 수도 있으며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경우 건설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폭 넓게 통용되고 있다.

갈등이 과다하면 조직 전체가 혼란과 불안에 휘말릴 수 있다. 반대로 갈등이 없는 조직은 다양한 사고, 생각의 표현과 정보흐름이 억압되어 조직의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갈등이 적정수준으로 관리된다면 구성원들이 이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표출하여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조직을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갈등은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 학자들은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리더가 갈등사안에 공개적으로 진솔하게 대처하여 조직분위기를 개방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한다. 또한 갈등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및 기구를 공식화, 일상화, 표준화시켜 잠재된 갈등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며 인적, 물적, 정보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갈등이 구성원들 간에 과업의 내용과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과업 처리 방식을 재평가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꾀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갈등이 구성원간의 태도, 선호, 성격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여 감정의 변화가 수반된다면 업무에 불만족을 느끼며 이직 의도가 증가된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개개인들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커뮤니케이션이란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의 정보를 전환하여 집단 간의 의사와 정보를 숙지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커뮤니케이션은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면서 조직 내부에서 건설적인 기능을 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활성화 되어야 한다.

우선 지도자와 경영 팀은 시행착오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여 조직 내부에 신뢰성을

구축하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분위기를 개방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한다.

지시형인 일방적인 의사소통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성원과 집단에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여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잠재적인 갈등 소지에 대처한다.

신뢰성과 개방성의 구축이 미비한 경우, 구성원들의 참여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 역기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조직의 분위기가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 되도록 노력한다.

조직의 분위기가 구성원들의 참여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여도 조직의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가 없다면 결국 조직의 성과에 무의미하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근하여 조직의 발전에 활용하여 확산시킨다면 조직성과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로 해결하려면 조직의 분위기를 개방적으로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 후에도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여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갈등의 역기능을 제어하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노력한다.

갈등의 활용

우리학교 구성원 누구나 현재 학교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다양한 견해와 방안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각한 갈등에 휘말려 있다.

갈등이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므로 복잡한 갈등상황을 회피하거나 소멸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표출시킨 이후에 구성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제안을 실현시켜 실행과정과 효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한다. 이 경우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던 구성원들도 갈등과 관련이 깊은 대안을 내놓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현 갈등상황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갈등해결 방안을 등국대학교의 고유한 문화와 상황과 적합하도록 적용한다면 현재의 갈등은 미래의 우리학교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김 현 동
경명대 경영학과 교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학내 갈등 사례

불필요한 갈등 최소화 위해

상호 원활한 소통 필요

사업진행 지연·갈등으로 야기되는 간접비용 줄여야

정부, 지역사회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지역주민,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정부 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다.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몇몇 사안에서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이 이뤄지지 못해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

올해 초 학교의 가장 큰 이슈는 학과편제 및 정원조정안 발표였다. 지난 4월 20일 학과편제 및 정원조정안 발표되면서 폐과대상으로 꼽혔던 독어독문학과, 북한학과는 구단 성명 발표, 학교 측과의 면담 등으로 활발하게 입장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해 5월 22일에는 문과대, 법과대, 사회과학대, 정보산업대, 예술대, 사범대 등 6개 단과대 학생들이 '비민주적 학제개편 반대 학생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4층 총장실로 진입하려던 학생들이 3층 학사지원본부 교무팀을 점거하기도 했다. 당시 단과대 학생대표단은 "학과편제 및 정원조정안이 해당 학과 학생들의 의견이 묵살된 채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항의농성 이틀째인 5월 23일에서야 문과대학장, 학사지원본부장, 학생서비스팀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 학사지원본부는 "앞으로 학과편제와 같은 큰 문제에 대해서는 단과대학장(교수)의 중재를 통해 학생과 학교 행정 주체의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학과편제 시행안을 만들기까지 추진과정에서 학생, 교수들의 의견수렴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처럼 각 학과와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은 학교 편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학생과 교수들이 추진과정에서 주축이 되지 못하고 통보를 받는 대상이 되

어버렸기 때문이다. 한편, 로스쿨 인가신청을 앞두고 인가조건 충족을 위한 학내 공간 재조정으로 학내는 지금 한창 분주하다. 이번에 법학전문대 서관으로 리모델링 되는 만해관 열람실 1, 2, 3층 공사가 지난 10일 착공했다. 만해관 공사로 인한 열람실 사용 중지와, 대안에 대한 공지가 지난 8일 이뤄졌고, 9일부터 2층과 3층 공사를 시작으로 10일에는 1층도 공사가 시작했다. 공사 하루 전 날 이뤄진 공지를 보고 학생들의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로스쿨 인가신청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알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공사를 해야 하고, 로스쿨 인가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 안내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만 이뤄졌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반면 학교 측은 "로스쿨 인가신청을 위해 존각을 다루는 급박한 상황이고 사용종지로 인한 대책마련 협의가 늦어져 공지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루아침에 열람실 사용이 중단 된 사실도 있지만 학교당국이 일을 진행할 때 사전 공지나 의견 수렴 없이 모든 사안이 결정된 후 '통보' 한다는 것이다.

구성원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채 진행했던 일들의 공통점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구성원 의견 수렴기간,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진행의 지연, 그에 대한 간접비용이 손실된 것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통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미혜 기자
limisonaral@dongguk.edu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성공 취업을 위한 2007년 5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7년 5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을 시행함을 안내하니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1. 목 적
 - 유형별, 단계별 면접훈련을 통해 다양한 면접과정의 이해
 - 면접 시뮬레이션과 Role Play를 통해 면접스킬 강화와 자신감 획득
 - 유형별 면접실습을 통한 본인의 능력과약과 효과적인 면접 전략 수립
- 2. 교육내용
 - 가. 교육형태 : 1일(8시간) 면접스킬 집중교육
 -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구분	차수	일시	인원	비고
2007-2학기	5 차	2007. 12. 1(토) 09:00 - 18:00	50명	

다. 교육장소 : 본교 다학관세미나실
라. 프로그램 및 강사

시간	프로그램	내용	진행 및 강사
08:40~09:00	등록	출석체크 및 교재 배부	취업지원센터
09:00~10:00	면접 특강	면접의 이해 및 면접예비 인터뷰스킬	전문강사
10:00~12:00	유형별 면접실습 I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 + 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12:00~13:00	점심	상복원 식탁	
13:00~15:00	유형별 면접실습 II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 + 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인사 담당
15:00~18:00	인사담당실점 모의면접	- 실전면접 + 코칭 - 집단, 토론, 영어, 프리젠테이션 면접	
18:00~18:20	설문조사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 3. 모집대상 및 모집기간
 - 가. 모집대상 : 3, 4학년 및 기졸업자
 - 나. 모집기간 : 2007. 11. 15(목)~11. 21(수)
* 선발인원(50명)의 2배수(100명)까지 선착순 접수
- 4. 신청장소 :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첨 소정양식)
* 신청(접수)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6. 선발방법 : 접수순서로 선발예정
- 7. 선발자 명단 공고 : 2007. 11. 26(일)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 8. 기타사항 : 교육비 전액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 ☎2280-3054,3055)로 문의바랍니다.

2007 동계 재학생[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동계 재학생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캠프명 : 2007년 동계 재학생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

- 2. 목적
 -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자신감 및 리더십 함양 교육
 - 인사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체험을 통한 재학생 취업 성공 및 기본 역량 강화
 - 교육 참가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 협력관계 구축의 장 마련
- 3. 모집대상 : 재학생 전학년(인원초과시 3,4학년 우선배정)
* 선발인원의 2배수까지 선착순 접수
- 4. 모집기간 : 2007. 11. 19(월) ~ 11. 27(화)
- 5. 신청장소 :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 6. 제출서류 : HRDP 취업캠프 참가 자기소개서(별첨 소정 양식)
* 신청(접수)시 '취업캠프 자기소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7. 선발방법 : 내부기준(자기소개서, 접수순서, 학년 등)에 의거하여 선발예정
- 8. 선발자 명단 공고 : 2007. 12. 4(화)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 9. 캠프(교육) 내용
 - 가. 교육형태 : 합숙교육(3박4일)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구분	회수	일 자	인원	비고
동계방학기간	8기	2007.12.26(수)~12.29(토)	50명	

다. 교육장소 : 삼보인재개발원(경기도 안성 소재)
라. 교육주관 : 잡코리아
마. 일일 주요 프로그램

구분	교육명	주요 교육내용
1일차	직무역량 강화	- 성공적인 자기관리 및 자기경영, - 커뮤니케이션 기법 - 창의력개발, 기획력 향상
2일차	자기관리 및 리더십 강화	- 비전 설정 및 목표수립 - 시간관리 기법 - 셀프 리더쉽, 팀 리더쉽
3일차	취업준비 교육	- 국문 이력서 작성 및 컨설팅 - 영문 이력서 작성법, 영어면접기법 - 성공면접 이미지 메이킹 - 면접 Role Play (1:1, 다:1, 면접 시뮬레이션)
4일차	실전 취업 스킬	- 면접 Role Play(토론펀터 시뮬레이션) - 면접 프리젠테이션 위한 성공전략 - 기업 인사담당자 실전 모의면접

- 10. 기타사항 :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유니폼과 기념품 제공 및 수료증 발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로 문의바람 (문의전화 : 2260-3054~6)

일본학연구소 주최 - 한중일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

삼국의 새로운 연대 형성을 위한 고찰

문화·환경·경제 등 5개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 '붐물'

'가깝지만 먼 이웃'. 이렇게도 한중일 세 나라의 관계를 현실적이고 적나라하게 나타낸 표현이 있을까. 하지만 이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삼국에서도 유럽공동체(EU)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우리학교에서도 삼국이 '문화'로써 화합을 이루어 나갈 길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15일, 16일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한·중·일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다. 한·중·일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우리 학교, 중국사회과학원, 일본 규슈대학이 공동 주최로 개최된 것이다.

지난 2월 '동아시아의 새로운 연대와 지역 아이덴티티 형성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규슈대학에서 학술심포지엄을 연 것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내년에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심포지엄의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홍윤식(일본학연구소장) 조직위원장은 "이번에는 한중일 공동의 정체성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며 "3회에 걸친 심포지



특별강연을 한 김지하(좌) 석좌교수와 한국대포 기조강연자 이어령(우) 전 장관



특별강연을 한 김지하(좌) 석좌교수와 한국대포 기조강연자 이어령(우) 전 장관

엄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각 나라에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15일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어령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동아시아의 융합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있었다. 유사지역권에 있는 삼국의 연합을 말했던 이 전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독자적인 아시아 네트워크 국가의 권역이 생겨나게 된다면 글로벌 문명은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내 일국중

심의 패권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 대륙과 해양을 조화하는 반도만이 아니라 지구를 에워싼 두 문명을 조화로 이끌어가는 반도로서 역할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장립봉 소장의 '21세기 한중일 협력방안 고찰'과 일본 규



15일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린 한중일심포지엄 개회식.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제1분과 경제를 뛰어넘는 문화

민족감정 극복한 동질성 회복이 중요

동북아 시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테마는 역시 문화였다.

대부분의 발표자들은 한중일 삼국의 문화가 유교와 한자문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반에 있어서는 상당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식민지배와 그로 인한 민족감정 등이 남아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와세다대학 이와부치 고이치 교수는 '아시아를 아우르는 문화 사이의 진전에 관한 고찰'을 통해 기본적으로 한중일 삼국의 문화교류는 대화를 통한 교류라는 측면과 불균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화교류의 특성과 관련해 "초국가적 공개대담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화된 대화는 공공기관과 사설기관 그리고 대학의 공동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당잉순 교수는 '한중일 삼국 대중문화교류와 그 영향'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한중일 삼국의 문화교류는 양적인 불균형이 심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역사적 굴곡과 민족감정 문제를 주의해야 대중문화를 통한 상호이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분과 의료 생명윤리

각국의 다른 관심사, 다양한 논의 나와

의료와 생명윤리분야에서는 각국의 관심사가 확연히 달랐다. 한국이 줄기세포 연구 등에 있어 연구의 윤리성과 법제도 정비차원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중국은 유아 성비 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 일본의 경우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발표됐다.

이화여대 권복구 교수는 '생명윤리가 발전하기 위해선 다양한 시민참여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김우주 교수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논란은 법규 제정의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이라며 여성계, 종교계, 연구자들의 생명윤리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규슈대학 수지타니 교수는 "일본의 경우 타인을 위한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일본의 특수한 유교적 전통"이라며 "제도나 법률 정비보다 정신적 장벽의 제거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 왕양구양 교수는 중국의 성비(性比) 불균형에 대해 소개하고 "남존여비의 문화를 고치고 여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이뤄져야 성비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3분과 경제 산업제휴

국제분업 네트워크 구축 위한 노력 필요

경제와 산업분야에서의 화두는 단연 한중일 삼국의 산업구조의 차이를 활용한 국제분업 네트워크 구축과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사업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했다는 점이다.

일본 쿠틀메대학 나가이케 교수는 "동남아시아의 ASEAN에 대응하는 동북아시아 3국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생산, 조립, 소비에 있어 국제분업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남대 백권호 교수는 "각국의 현지화 전략에 있어 인적자원의 현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중국의 경우 사회적 교환관계에서의 배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것이 상당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분야 발표에 나선 당민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원자력 에너지 이용 등에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원 개발분야의 기술적 재정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민 교수는 핵에너지와 관련해 핵확산 방지를 핑계로 개발도상국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제4분과 고령화의 진전과 가족 사회

고령화 정도에 따른 주제 선정 나타나

고령화와 가족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고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이 주로 제시된 반면 중국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노인 부양문제가 부각된 특징이 있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원은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국가경제적 파급을 고려해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노인인구를 새로운 성장동력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일본불교대학 박광준 교수는 "한국의 경우 고령화의 주요한 원인이 심각한 남녀불평등에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일본 규슈대학원 키요시 교수는 일본에서 연구된 '백로소 요리아이' 라는 소규모 다기능 밀착형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비용이 적게들면서 효과가 좋은 노인의료정착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후펑 교수는 "중국의 경우 가족관계에 있어 아직은 유교적 '효' 개념이 살아 있어 가족 간, 세대 간 부양방식이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정중심의 양로제에서 시장화 된 서비스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5분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온실가스 '정보공유, 공동대처' 모색

제5분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환경오염, 한중일 삼국의 연구해 해양문제 공동조사 등이 주요한 현안으로 논의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유승직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정보공유와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비용절감,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한 "환경 친화적인 경제발전이 절실한 때다"라고 말했다. 반면 교토대학의 우에다 교수는 "지구 온난화 방지는 경제의 질을 강화한다"며 "온난화 방지 상품, 온난화 방지 생활 만들기 등 사회제도 혁신을 통한 온난화 대책"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또, 규슈대학의 야나기 교수는 "현재 서해와 한중일 연구에서의 환경변화가 심각하다"며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간 대화 이전에 각국 NGO 간의 정보교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사회과학원 순신 연구원은 "한중일 삼국에 아세안 국가 10개국과의 10+3 회의기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역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 노력과 별개로 학술·NGO단체간의 공동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1학기 전과 시행 안내

- 1. 전과 신청 지역: 전과 제한을 받지 않는 2학기 ~ 5학기 재학생
* 휴학생, 편입생, 전과 이력이 있는 학생, 수시모집 불교계추진원전 불교학부 입학생은 전과 신청 불가능
2. 학년별 전과가능인원, 전형기준, 일시, 장소: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전과 일정
가. 전과 신청 및 접수: 2007.11.20(화) ~ 11.22(목) - 전담희망학과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
나. 전형(구술, 실기, 기타): 2007.12.21(금) - 각 학과 자체 시행
다. 합격자 발표: 2008. 1.18(금)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생 개별 조회)
라. 학적변동: 2008. 3. 1(토) 이전 (*2008-1학기 개시일 이전)
4. 제출서류
가. 전과(전공변경) 신청원 1부(서식: 학교홈페이지-서울캠퍼스-학사/생활-양식함-전공No.5)
나. 학업이수계획서 2부(서식: 학교홈페이지-서울캠퍼스-학사/생활-양식함-전공No.4)
다. 성적증명서 2부
라. 제출처: 전입 학과(전공)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
5. 전과 전형 일차
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나. 예체능계열 학과는 실기시험, 사범계열 학과는 교직인적성검사를 시행
다. 학과(전공)별 세부 전형기준과 반영 비율을 학과(전공) 자체 결정 시행
6. 전형료: 전과(전공변경) 전형료: 2만원 (*본관 학생서비스팀 증지자판기 이용)
7. 기타
가. 전과관 학생은 전입학 학과(전공)에서 정한 교과과목, 대학(학과) 지정과목, 전공과목, 졸업논문(시험), 외국어시험 등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충족하여야 함
나. 전과 이전 전출학 학과(전공)를 복수전공과목으로 신청할 수 있음
다. 취득과목 이수구분(전공, 복수전공, 자유선택 등)을 전입학과 기준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라. 이수중인 복수전공으로 전과한 경우에는 '복수전공포기원-양식: 학교홈페이지'을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제출기한: 2008. 3.10(월))
마. 지도교수변경: 학적 - 학적관리 - 지도교수배정(*기한: 2008. 3. 7(금))
8. 문의: 전입 학과(전공)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

2007년도 동계 중국 중산대 단기어학연수단 파견모집

2007 동계 중국 중산대 단기어학연수단을 다음과 같이 파견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연수기간: 2008. 1. 4 (금) ~ 1. 31 (목), 4주
가. 출발일: 2008. 1. 3 (목) ~ 2. 1 (금)
* 출발일 및 도착일은 내부 사정의 의해 변동가능
2. 연수비용: 자비
가. 15인 이상: 5250위안/ 대략 692,900원(학비, 기숙사비 포함)
(1) 학비: 3380위안(등록비, 교재비, PICK UP비, 송별비 포함)
(2) 기숙사비: 1950위안(30일)*130위안/2인실 기준
* 1인실: 100위안/일, 2인실: 65위안/일
* TV, 전화, 실내화장실, 운수목적시설
나. 항공료, 식비: 별도
다. 관광비: 별도로 신청하는 사안에 한하여 주변지역 문화체험가능 (장비별도)
* 상기 금액은 추후 변동 가능
3. 수업내용
가. 중국어 강좌: 중국어 듣기, 열독
(1) 월 ~ 금 (오전): language course
(2) 매일 오전 4과목: 40분 강의
나. 중국문화 강좌: 중국 서예, 태극권
(1) 매주 2회 오후 중국문화강좌 개설 : 오후 2과목
4. 선발방식
가. 지원요건
(1) 지원자격: 본교 학생인 누구나 지원가능(본과생, 휴학생, 석·박사)
(2) 신청마감일: 금요일 ~ 2007. 11. 26 (월), 오후 5:00. 국제교류팀(본관 3층)
(3) 선착순 선발: 15 ~ 30명
나. 학사혜택: 30학점 인정(단, 귀국 후 체류보고서 제출자에 한함)
다. 지원방법
(1) 구비서류: 신청서, 재학(적)증명서 1부
(2) 제출방법: 국제교류팀으로 방문 혹은 이메일
* 이메일로 지원 후, 확인요망 (재학증명서는 추후 제출)
라. 제출처: 국제교류팀 (본관 3층, ☎ 2260-3464,3466, monica@dongguk.edu)

국제화추진단 국제교류팀

졸업요건 영어PASS제 모의토익(11월24일) 시행

영어PASS제는 졸업요건으로서, 해당 학생들은 대학/학과의 지정된 영어 점수를 졸업 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정규시험(TOEIC, TOEFL, TEPS)이외의 패스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 서 PASS제 모의 토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접수: 11. 19 (월) ~ 11. 21(수) 24:00까지 (동국대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2. 입금: 11. 19 (월) ~ 11. 21(수) 24:00까지 (계좌이체)
3. 접수증 출력기간: 11. 23 (금) ~ 11. 24(토)
4. 취소 및 응시료 환불할 수 없습니다.
5. 방법: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재학생서비스 my page - 외국어PASS제 - 영어패스시험 신청 - 응시료 입금 - 접수증 출력
6. 시험: 2007. 11. 24(토) 10:00~12:30 해화관 2층 강의실
7. 대상: 영어PASS제 미취득자 및 일반재학생
8. 응시료: 5,000원
9. 입결문의일: 2007. 11. 21 (수) 24:00까지 (미입결시 접수 취소됨)
입결결과: 신한은행 140-007-481766 (예금주: 동국대학교)
10. 주의사항
가. 입금마감일까지 반드시 본인입금으로 응시료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행위 적발시 징계조치 됨.
11.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샤프)
12. 문의: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해화관 1층, 2260-3468, 3470)
13. 시험 주의사항:
가. 9시 30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0:00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14. 다음 모의토익 시험일정 안내
- 12월 22일(토)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영어Pass제 대체강좌 공고

개설취지 및 목적	1. 졸업인증 미 취득자에 대해 보충학습 기회 제공 2. 강좌는 졸업인증 Pass제의 취지에 합당하게 구성되며 출결 및 성적이 엄격히 관리됨.
강좌구성	강좌명 2007년 하반기 졸업 Pass제 대체강좌 수업기간 2008년 1월 7일(월) ~ 2008년 1월 19일(토) 강의시간 평 일: 2시 ~ 6시 (4시간) 토요일: 10시 ~ 3시 (4시간, 12~1시는 점심시간) 강의내용 TOEIC LC+RC/정규 강좌/ Reading Voca / 비즈니스 영어 강 의 실 추후공고
수강자격 및 조건	1.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영어Pass제 미통과자 및 수료자 2. 영어공인인증시험(TOEIC, TOEFL, TEPS) 및 외국어 교육센터 Pass제 모의토익 시험 3회 이상 응시 경험 있는 자
총점산출	출석률 60% + 성적 40%
Pass 기준	Pass 기준 1. 총점70점 이상일 경우 Pass 2. 2회 이상 결석 혹은 시험 미응시는 점수와 관계 없이 재적 3. Pass의 경우 영어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것으로 처리
수강일차	12월 17일(월) ~ 12월 28일(금)
접수장소	해화관 1층 English Clinic
준 비 물	신청서, 사진 2장, 신분증, 시험응시증명서류(성적표)
신청방법	1. 수강신청서 작성, 과거 영어시험 증명자료와 같이 접수 후 2. 온라인 입금 : 신한은행 / 계좌번호 140-006-754830 / 예금주: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수 강 료	200,000원 (교재 별도)
문의사항	2260-3468, 3470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달하나 천강에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한 표



정용길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17대 대통령선거도 이제 불과 3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분위기는 아직도 냉랭하다.

대통령을 뽑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합당"이나 "단일화"니 하는 각종 정당들의 정치 선동성 구호와 대통령 후보자들을 둘러싼 인신공격성 발언만 난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리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대통령선출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대통령선거에 입후보자를 낼 정당들은 당내 경선을 통

하여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후보자는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이 과정이 생략된 간접선거는 입후보자와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도 없고 자질이나 능력 평가도 어려우며, 무엇보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나 정당에 의해 회유되거나 매수되어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 폐해가 직접선거를 치루면서 겪는 번거로움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경비도 많이 들고 복잡한 과정을 감수하고서라도 직접선거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은 고쳐져야 한다. 물론 선거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은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에 있다.

그러나 그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누가, 또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여도 정치가 법과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선거나 정치에 무관심해 질 수 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의 국민들은 누구, 또는 어느 정당을 뽑아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나 정치에 무관심해 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들이 선거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모든 선거에 무

관심한 것은 아니다.

요즈음 우리학교 출입문 주변에서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조직적으로 율동을 하며 입후보자의 기호를 외치거나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 매우 열심히 운동을 한다. 물론 그들은 선거운동원들이기 때문이고, 막상 투표율은 높지 않은 것이 보통이었다.

왜 그럴까? 좀 야박한 평가이지만 사람들은 너무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를 할 때 그 조직을 발전시킬 사람을 선출하기 보다는, 그 입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투표를 한 "나"와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과 결부시켜 보면 대통령선거는 대학생 자신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고,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는, 입후보자를 또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는 나를 비롯해 부모, 친구와 친척 등 우리나라 모두의 운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일이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그리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행위를 하는 날이다. 대학생들이 '투표'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한다면 그 나라의 장래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동약은 시골벽적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단편, 4배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휴대이메일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이번학기부터 '열린글터'를 폐지하고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동약은 시골벽적'을 신설했다. 우리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위해 민해관을 로스쿨전문건물로 리모델링 하고있다. 반면에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일찍 공지하지 못하고 대책도 미흡했다. 이번 주에는 민해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학교에게 아쉬웠던 점을 들어보았다.

민해관 열람실 폐쇄! 불편함이 문제인가?

학교행정, 학생배려 우선돼야

지난 10일부터 민해관의 열람실이 로스쿨 승인을 위한 법학전문도서관 공사를 위해 폐쇄되었다.

지금까지 민해관은 천여 석의 좌석을 보유하여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하던 공간이었다. 민해관 폐쇄에 따른 부족한 열람실을 대체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

민해관 열람실 폐쇄에 대한 공지가 지나치게 촉박하게 이루어졌고, 그 형식 또한 너무 미진했다.

각종 고시 등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측의 일방적인 공고는 학생들을 적잖이 당황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중앙도서관의 이용 시간이 연장되지 않은 현재 9시가 넘어서 공부할 곳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다가를 기말고사 기간에는 중앙도서관에 추가로 마련된 열람석과 문화관에 확보된 입

시열람실이 큰 혼란 없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중앙도서관의 경우 좌석 수를 늘리기 위해 배치한 책상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관계부서는 민해관 열람실의 법학도서관 공사가 완료되면, 1층에는 기존 형식의 열람실이 전체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결국 기존 열람실 좌석수와 거의 유사한 규모의 좌석이 전체 캠퍼스에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물함과 컴퓨터 사용가능 유무나 열람실 환경의 쾌적성 여부, 열람실 위치에 따른 제한적인 접근성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보다는 매번 급박하게 준비를 하는 학교 측이 문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학기에도 이러한 학교 측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학기 중에 원혼관을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공학인증단의 방문을 앞두고 시행된 한 달간의 급박한 공사는 강의실 내부의 책상과 칠판의 개보수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강의실의 외관을 꾸미는데 치중했을 뿐이다. 심지어 다른 대학에 비해 빨리 시행된 공학인증제의 이점에 대한 의문조차 든다.

오영교 총장 취임 이래 학교는 '108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난 7개월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힘 없이 달려왔다.

동국관, 학림관, 문화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갔고, 지난달 31일에는 총장님과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의 장을 여는 등 개혁이 단행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측의 선견지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사의 당위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공사에 대한 사전 안내나 대책 마련 등이 미흡한 점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공사이지만만큼 불편하더라도 너그러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한다는 말보다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으로 발전하는 학교의 모습일 것이다. 학교행정을 처리할 때 언제나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기를 바란다.

구원모(공과대 전자공3)

우리학교 논술 길라잡이

일시 논술 시즈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입학처와 공동으로 논술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논술 준비 연중기획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번 2학기에는 논술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서 ●토론 ●NIE ●연습 ●평가 ●나만의 생각 ●유의사항

편집자

6. 논술 준비 이렇게 한다 - 나만의 생각

나만의 생각, '과정'에서 발휘하라

- 글 쓰는 순서
1. 독서 2. 토론 3. NIE 4. 연습 5. 평가 6. 나만의 생각 7. 유의사항

가능하지도 않다. 논술평가에서 중시하는 답안은 '새로운 관점'으로 전개된 글이다. 결론의 창의성이 아닌 사고과정으로서 창의성을 중시한다는 얘기다.

아파트 옥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그린다고 가정해보자. 자동차를 중심에 두고 옆에서 바라보고 그리느냐 앞에서 바라보고 그리느냐 아니면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그리느냐에 따라 형태나 입체성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옆에서 바라본 모습만 그렸을 때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린 그림을 제출한다면 어떤 그림이 신선하게 다가오겠는가? 논술문제는 '관점의 새로움'을 요구한다.

예컨대, "운동주의 '서시'의 화자가 보여주는 한계를 비판하라"(이화대 2007학년도 수시1학기 논술문제)나 "불안의 생산성, 향존성이 어떻게 사회문화의 역동성으로 작동하는가?"(연세대학교 2006학년도 정시 논술문제)와 같은 문제는 각각 자기반성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과 '불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회의하고 다른 관점에서 사고해 보라는 문제이다.

글쓰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관습적이고 타성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는 것이다. 인간과 세계에 대해 남들보다는 조금 다르게, 조금 깊게 성찰하는 사고과정이야말로 창의적인 사고 즉 '나만의 생각'을 정교하게 탐마하는 지름길이다.

창의성 = 새로운 관점

우선 이 창의성이라는 평가항목에 대한 오해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 대부분은 창의성을 주장(결론)의 창의성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출제위원들이 요구하는 창의적인 답안이란 다른 이들이 발견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주장을 담은 글이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발견에 해당하는 내용은 요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함께 창의적인 사고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독창적인 논거이다. 엇비슷한 주장에 대하여 제시된 논거가 독창적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논거의 독창성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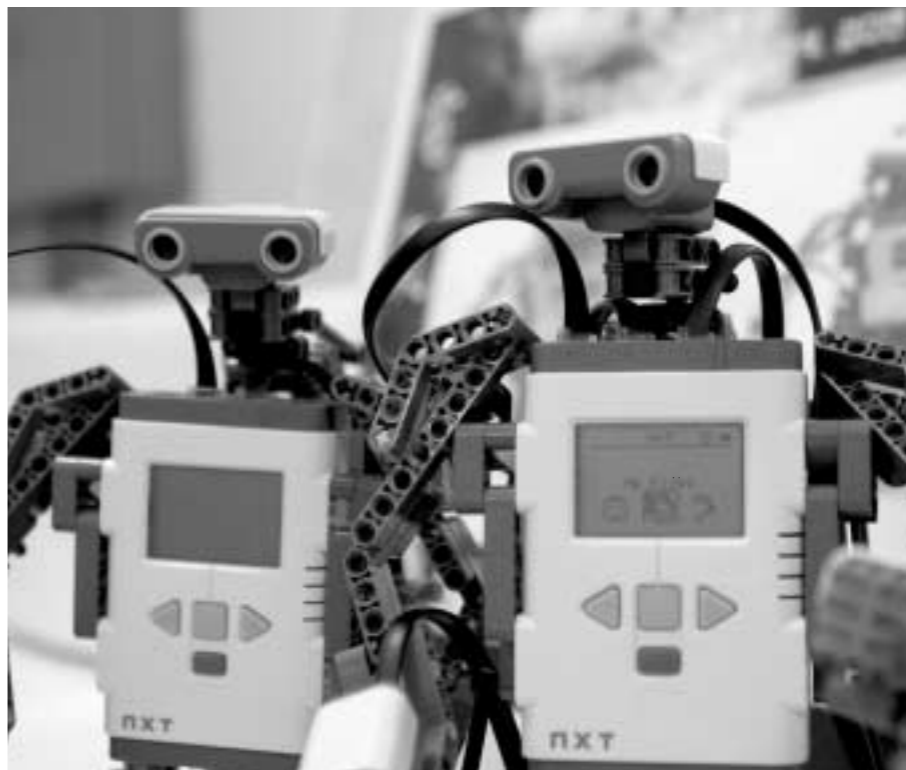
논술의 독창성은 주장의 독창성보다는 논거의 독창성에서 그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나만의 독창적인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삶의 직간접적인 체험을 결합시키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이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논제라도 신문과 방송의 보도내용이나 광고와 같이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소재나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논거로 삼아 주장과 적절히 조화시킨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참신한 글이 될 수 있다.

통합논술은 수험생들에게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밝혀서 자신의 주장을 객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출제 경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을 논술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정으로서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통합지식과 삶의 체험을 풍부하게 연결시키는 능력이다. 논술의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건은 삶의 현실 속에서 주장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상상력에 있다.

김혜련
사범대 국어교육과 강사



독자 사진첩

내 이름은 휴머노이드

나는 두 팔, 두 다리가 있어

직접 걸을 수 있지.

짜잔.

전기공학과 학생회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학내 '뜨거운 감자' 잘 담아내

요즘 동약은 '선거'로 후끈후끈하다. 선전전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한 유인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다. 학생들 또한 지난해와는 달리 경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총학생회 선거에 대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호 동대신문에서는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특집으로 두 후보의 공약을 잘 소개해 주어 독자들로 하여금 찬찬히 두 후보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총학생회선거 관련 논란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른 기사도 있

어 독자들에게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한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이 좋았다.

특집면에서 재학생과 총장과의 대화 내용을 실어준 점도 좋았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도 신문을 읽으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 또 재학생과 총장과의 대화 때 많은 질문이 오고가서 잘 정리되지 않았던 점을 중요한 것만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다.

문화면에서는 남산 산책코스에 대하여 3가지 길을 소개해 주었다. 바로 학교 뒤에 있는 산인데도 잘 가보지 않았는데 자세하게 산책코스를 소개해 주고 케이블카의 가격

까지 정확히 알려주는 세심함이 돋보였다.

이 밖에도 신정아 사건으로 인한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사, 민해관 폐쇄에 관한 만평 등이 학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좋은 내용이 많았던 지난 호였지만 때 지난 정보가 있었던 아쉬움이 있었다. 그것은 1면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 특강' 참가자 모집에 관한 기사다.

'오는 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 다'는 내용이었는데 신문의 배포일은 12일이어서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하였다. 좀 더 발 빠른 동대신문이 되어 학생들의 정보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김보람(사과대 신병2)

	동국관	상록원	원 향	아리수
월 (11/19)	쇠고기국밥 (2000) 치킨볶음밥 (2000) 고구마돈가스 (2500)	제육볶음 (2000) 얼무비빔밥 (2000) 부대찌개 (2500)	김치볶음밥(2900) 사골우거지국 (2500) 갈치조림 (3500)	돈뽀우거지탕 (2000) 닭갈비 (2000)
화 (11/20)	살랑탕 (2000) 제육비빔밥 (2000) 새우가스 (2500)	두부김치 (1800) 날치알회덮밥 (2000) 떡배기불고기 (2000)	부대찌개 (2900) 칸참치비빔밥 (2500) 원향세트 (2900)	쇠고기국밥 (2000) 낙지덮밥(2000)
수 (11/21)	육개장 (2000) 돈육계란장조림 (2000) 치킨가스 (2500)	삼선짜국이 (1800) 닭고기카레볶음밥 (2000) 쇠고기국밥 (2500)	오므라이스 (2900) 짬뽕백반 (2500) 단호박식태뎀 (3500)	부대찌개 (2000) 오삼불고기덮밥 (2000)
목 (11/22)	해물경단 (2000) 참치김치볶음밥 (2000) 수제돈가스 (3000)	공치양념구이 (2000) 오삼불고기덮밥 (2200) 육개장 (2500)	일밥 (2900) 양지떡국 (2500) 누룽지탕 (3500)	쇠고기카레라이스 (2000) 산채비빔밥 (2000)
금 (11/23)	감자탕 (2000) 해물덮밥 (2000) 치즈돈가스 (2500)	잡채 (1800) 쇠고기볶음밥 (2000) 닭곰탕 (2500)	사리곰탕 (2900) 양송이볶음밥 (2500) 오징어떡볶음덮밥 (2500)	버섯육개장 (2000) 제육볶음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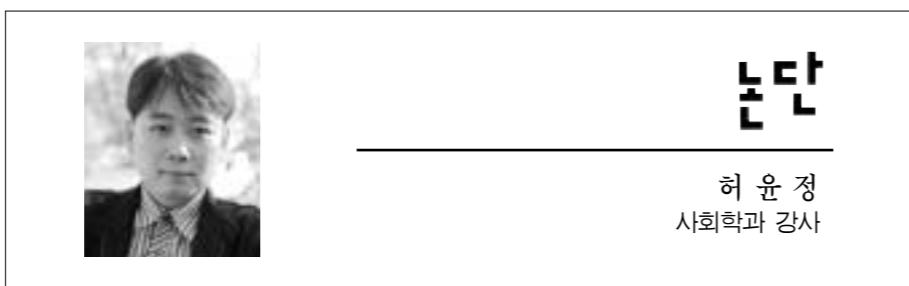
선거에서 인터넷의 역할

웹 2.0 시대의 선거, 네티즌 성숙도에 달려있어

대선(大選)이든, 학내선거이든 선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지만 어찌됐든 정치의 계절이다. 인터넷에 큰 도움을 받아 등장했던 현 정권에 대한 공과(功過)의 논의는 일단 접어두자. 여기서 관심을 두는 것은 지난 16대 대선(經過)에 대한 눈에 띄는 현상 중의 하나가 인터넷 공론장의 창출과정이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공적인 상황에 대한 시민적 참여의 경험적 결과가 축적된 사건이었으며, 지배적인 질서에 대항하는 힘이 발현되는 장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03년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 기사에 다음과 같은 제목까지 달았다. "World's first internet president logs on"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이러한 장은 표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느낀다. 특히 2002년 대선과는 달리 올해에는 정치적 담론을 주도하는 주체가 선명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수많은 언론사와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UCC가 담론의 주도적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상은 콘텐츠 부재로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해 인터넷 공론



논단
허윤정
사회학과 강사

장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포털·언론, 상업화 가속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대선을 상업화하려는 여러 포털과 언론들의 몸부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의 선택적 게시나 재편집은 정치폭로와 스캔들, 정치 이벤트 등 드라마틱한 시청각적 요소를 과도하게 노출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무자비한 편집은 대중을 정치적 단순화 또는 탈정치화하거나 불안 심리의 증폭, 허위적 사실 유포를 통한 진정한 민주적 공론장의 위축을 재생산 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정책선거 이전의 감성정치나 폭로정치의 현

실적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의 뉴스는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정치 의제를 공론장으로 끌어 들이는 것은 물론, 정확하고, 독립적이며 분석적인 뉴스를 제공해서 정치 활성화에 기여해야만 한다. 이것은 그들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다.

네티즌 역할 더욱 '막중'

포털사이트와 언론사가 자기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네티즌의 주체적 역할은 막중해지고 있다. 네티즌은 원래 철저히 개인적인 속성과 강한 자아(ego)를 지니는 특성이 있다.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공동체적 사고의 흐름이 많

은 힘을 발휘했지만 웹 2.0이 본격화 된 현재의 파편화 된 네티즌들에는 이미 특정 집단의 의견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언급되는 파편화라는 단어를 그다지 부정적인 의미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집단의 합일된 의견보다 옳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선거관련 정보나 입후보자에 관한 소문이나 전파의 신속성을 통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네티즌 스스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율적 자기통제는 앞으로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게시판이나 댓글의 저급한 감정적 대응과 독설은 사회적 갈등을 촉진시키는데 일조하지만 이는 단지 기증정치란 저질성을 조금 더 빠른 속도감으로 옮겨놓았을 뿐이다. 이것도 강한 선거법과 저질 댓글의 매너리즘으로 인해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주체적 공론장을 위한 네티즌의 파편화된 의식일 것이다. 남은 한 달, 인터넷이 주체적으로 뜨거워질지 비탈 뿐이다.

사설

정정당당한 선거를 촉구한다

총학생회가 위태롭다. 과거의 군사독재에 의한 학생 통제기구였던 학도호국단을 해체시키고 학생 스스로 만들었던 총학생회는 20여 년 동안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학생회 운영과 선거 운영을 보면 총학생회의 설립취지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중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 있다. 우리는 중선위가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기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후보 만들기에 나선 선거운동조직이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

우선 공동정책자료집을 볼 수 없다. 후보자들이 학생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중요한 자료인 정책자료집을 중선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발간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과 유세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상 문제를 들어 후보자들의 홍보물을 일방적으로 막고 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후보자를 판단한다. 그런데 중선위는 선거운동을 통제함으로써 후보자와 학생의 소통을 단절시켰다. 이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총학생회 선거를 진행하는 태도로 매우 부적합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선위는 사소한 문제를 점소봉대에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를 통해 한 후보를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고려시대의 고승인 지눌 스님은 "계초심학인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다가 햇빛을 들고 가는 죄인을 만났다. 그때 만약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므로 불빛까지 보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천길 벼랑으로 떨어질 뿐이다"

특정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것과 그 후보 자체를 무시하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학생회는 정정당당한 정책 대결로 학생회 대표를 선출해야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고 지지를 받는다. 이번 선거와 같이 진행되면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의미는 없어지고 결국 스스로의 존재마저도 위태로워질 뿐이다.

우리는 중선위가 후보자격박탈 결정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자세를 갖추기를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정도를 걷는 대학인의 자세라 할 것이다.

이주현 nitake@dongguk.edu



Table with 2 columns: Role (발행인, 편집인, 편집장) and Name (오영교, 윤재웅, 이윤재).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Dongguk University Press.

보리수 정혜결사 정신은 무엇인가?

'동대신문' 제1450호(2007. 10. 15)는 '정혜결사의 정신이 그림다'라는 사설을 실고 있다. 이 사설에서 주장하는 논지에 대해서 새삼 알기알바 시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혜결사의 정신을 파악하여 활용함에 있어서 그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바로 잡으려 할 뿐이다. 우선, 그 사설에서 정혜결사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옮겨 보기로 한다.

"우리는 오늘 고려시대 지눌스님이 밝힌 정혜결사문의 정신이 새삼 그림다. 이 결사문은 지눌스님이 고려 말기 불교계의 타락상을 바로잡기 위해 제시한 치유책으로서 올바른 선정과 지혜를 닦아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독려하는 글이다."

정혜결사의 정신을 이렇게만 말해도 좋을지? 만약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혜결사의 정신을 죽이고 있다 아니할 수 없으리라. 물론, "올바른 선정과 지혜를 닦아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독려하는" 것 역시 정혜결사의 정신을 이루는 한 구성요소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고 만다면 정혜결사의 정신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빠

지게 되고 만다. '정혜결사문'에서 그 해당 부분을 읽어보기로 하자.

"우리들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자취를 살펴보면, 불교를 빙자하여 내가 옳다거나 내가 옳다거나 하는 고집(我相)을 키우며 이익의 길에서 구구하며 티끌세상에 골몰하여 도덕을 닦지도 아니하면서 의식을 허비하니, 비록 출가했다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여기에는 그 당시 교단의 잘못된 모습의 핵심이 시비다툼(=권력)과 이익(=명리)의 추구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시비와 이익의 현장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정혜결사였다. 그래서 당시 권력과 명리의 추구가들이 모여있었던 수도 개성을 멀리 떠나 팔공산으로 은둔해 간 것이다.

따라서 시비다툼의 권력과 이익의 추구를 포기하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혜결사를 포함한 모든 결사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정과 지혜의 닦음은, 그런 뒤에 행하는 결사 중의 교육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김호성
인도철학과 교수

메아리 손으로 하늘 가리기

▲1985년 4월 4일, 동국대학교 제 17대 총학생회가 출범한다. 1975년부터 10여년간 허울뿐인 학생자치회를 표방했고 군사독재의 잔재였던 학도호국단은 그 날로 역사의 뒤안길을 따라 사라졌다.

학도호국단은 유신시절 태어나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학생을 통제하는 주요기구로서 역할을 했다. 그 시절 '학도호국단'을 일컬어 '어웅'이라고 불렀다. 군사정권의 '하수인'에서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총학생회'가 새로 태어난 것이다.

▲1987년 6월 15일, 총학생회가 부활된 지 2년여 만에 19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이 탄핵된다.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87년 6월 민주화운동 참여에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던 총학생회를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열어 탄핵시킨 것이다.

학생들의 의사수렴을 등한시하고 시대정신을 저버린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로부터 또 다시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총학생회 후보로 두 팀이 등록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두 후보 간의 선거운동 경쟁이 벌어지면서 선거운동과

유세를 하는데 제한을 받았다. 한편, 선거운동기간에 중선위와 2번 후보 측 사이에서 잡음도 발생했다. 지난 16일에는 경고 3회 누적으로 선거시행체계에 따라 2번 후보자가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 대학총학생회에서 선거시행체제 위반을 근거로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40년 총학생회 역사상 처음이다.

▲선거는 대의정치의 꽃이다. 유권자 스스로 투표를 통해 권력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대학은 한 사회의 모루이자, 진리의 상아탑으로 불린다. 아니 대학은 시대의 권력에 굴복했는지언정 학생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었다. 며칠 사이 총학생회를 둘러싸고 좋지 않은 잡음이 들리고 있다. 사소한 잘못을 들먹이며 후보자격을 박탈했다고 한다. 한 순간 대중의 눈을 가리거나 스스로의 양심을 가릴 수는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다. 과거의 그때처럼 모든 것이 들춰져 대중에게 낱낱이 공개되면 그 때는 무어라 할 것인가.

이윤재 편집장
yijoonjae@dongguk.edu

경찰행정학과 유도대회 & 경찰행정인의 밤. 45년의 국내 최고 역사와 함께 동국대학교의 자랑인 경찰행정학과에서 다가오는 23일 유도대회와 경찰행정인의 밤 행사가 있어 교내 여러 학우님들에게 알립니다. '교내구보'를 시작으로 하는 유도대회는 45기(07학번)들이 1년간 배운 유도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눈물과 땀으로 젖은 유도복을 들고 다니며 내일을 향한 희망과 의지로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한 그들의 승부가 기대됩니다. 교내 학우님들께서도 유도장으로 오셔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유도대회를 관람하시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날 저녁에 있을 경찰행정인의 밤에서는 학과 교수님과 선배님들을 모시고 재학생들이 파트너와 동반하여 장기자랑 및 다양한 게임을 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파트너가 없어 구매를 하는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있다면 끼개이 손을 잡아주시고 부디없이 함께 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매체시대에 영화를 감상하고 그 작품과 관련 텍스트를 비교 토론함으로써 영상문학의 이해를 높여 학생들의 독서인식도를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1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이란 : 한 가지 테마를 정해 관련 도서를 읽은 후 영화나 DVD를 개별관람하고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2. 일 정 가. 일 시 : 11월 23일(금) 오후2시-4시 나.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다. 진 행 : 중앙문학과 김양수 교수 라. 선정영화 : 색 계 / 이안 감독 2007년작 마. 관련도서 : 傾城之戀 / 張愛玲 著, 문학과지성사 2005. 동명소설(色戒) 번역본이 없어 작가의 다른 작품이 선정되었음 바. 정 원 : 11명 3.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관망>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영화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신청자는 관련 도서를 미리 읽어야 하며, 영화감상 후 일장평을 토론 당일 제출해야 합니다. 영화감상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중심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http://writing.dongguk.edu 동국관(M동) 4층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 2260-3380 FAX : 2260-3385. 제1기(2007년 2학기) 집중상담프로그램 선정자 공고.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 마련한 제1기(2007년 2학기) 보고서 집중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학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집중상담 프로그램은 보고서 작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고서 작성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는 과정입니다. 보고서의 준비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되는 글쓰기센터 연구조교들과의 일대일 상담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한편, 짜임새 있는 보고서 작성법을 익힐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2008년 1학기에 있을 제2기 보고서 집중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말보고서 등의 지도를 원하는 학생들은 편한 마음으로 글쓰기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분들을 위해 프로그램의 취지와 진행방식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했으나 반드시 참석해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자 명단과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자 명단 장지혜(교육학과) 조지영(사회과학부) 정유리(사회과학부) 봉정현(물리학과) 조정은(철학과) 이상 5명 ■ 오리엔테이션 일정 - 일 시 : 2007년 11월 20일(화) 17:00 - 장 소 :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제1상담실(동국관 M동) 4층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화(2260-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장남감 콜렉터 김혁(연극영화 83학번) 동문

별남 남자, 유쾌함 탐닉

장남감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 목표

80년대 판따라 색안경 속에 우리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시나리오를 쓰고, 어느새 학교를 나와 학생운동 한복판에서 민주화를 외쳤던 열혈청년. 후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도 했던 그는 현재 장남감 콜렉터로 유명한 김혁(연극영화 83학번) 동문이다.

처음엔 단지 좋아서 장남감을 사 모았지만 현재 전문적인 장남감 콜렉터로, 수집한 장남감만 약 1만 5천 점이나 된다. 지난해 8월에는 '나는 장남감에 탐닉한다'라는 장남감 도서도 출간한 바 있다. 또한 특수 박물관 기획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와일드웍스엔터프라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다. 선후배들은 그를 두고 등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신출귀몰한 '도깨비' 같다고 말한다. 이력부터 유별난 김혁 동문을 만나 그의 확장시절 에피소드와 장남감 철학을 들어 봤다.

그는 자신의 확장시절을 "정신없고, 재밌었고, 치열했고, 복잡다단했다"고 표현했다. "극작을 전공하면서 시나리오 쓰는 등 재미만 일도 많았지만 80년대의 불합리했던 시대적 상황이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나를 치열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그 시절을 돌아봤다.

목동 철거 반대 운동을 하는 선배를 따라 목동 빈민촌에 갔었다고 한다. 땅을 파고 비닐을 덮어 토굴 생활을 하는 빈민촌 사람들을 보면서 억압된 현실을 참을 수 없었다고.

이 세상의 불평등함과 비참함을 어떻게든 고쳐 보고자 학생운동을 시작했다는 김 동문. "그 당시는 자신만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을 살았던 모두가 그랬다"며 이 시대의 부조리에 저항 한마디 하지 않는 지금 대학생들의 세태를 아쉬워했다.

김 동문은 혼란한 세상과 맞서면서도 어린이아이들의 순진함과 천진난만한이 그대로 묻어있는 장남감과 계속 인연을 맺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모아온 장남감이 그 당시도 상당했으니 말이다. 그는 "단순히 좋아서 가지고 있던 장남감을 안 버렸을 뿐인데 어느새 많은 양이 되고 수집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남감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순간 반짝이는 눈

을 본 것은 착각이었을까. 그는 장남감의 가치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강연자로 돌변했다.

장남감은 어린이들이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접하고 어린이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간과한다는 것이 김혁씨의 생각이다. 장남감의 어원은 '놀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흐르는 냇가의 물이나 우리가 흔히 보는 주위 물건이 장남감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좁은 의미의 공산품으로써 장남감이 아니라 가지고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장남감"이라고 강조했다.

요즘은 정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도구적 가치에 문화적 요소가 더해져 장남감의 예술적 가치가 날로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장남감을 수집하려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유럽의 경우, 일찍이 그 가치를 인식하고 중요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장남감의 예술적 가치가 소홀히 여겨져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애니메이션박물관, 장남감박물관, 아이스크림박물관 등 기발한 박물관의 기획과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와일드웍스엔터프라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경기도박물관에서 '놀이와 장남감'이란 부제를 달고 장남감 전시를 했었다. 약 3개월간 열린 전시회는 경기도박물관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이었다고 한다. 자신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박물관 장남감 전시를 성공으로 이끌어 장남감 콜렉터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여 그의 네이버 블로그 테마파크 파라다이스(http://blog.naver.com/khegel)를 방문하면 자신의 장남감 일기에서부터 그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까지 그의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청산유수 같은 그의 '글빨'에 쫓וק 빨려 들어갈 수많은 네티즌들에 의해 이미 네이버 인기 블로그라고 한다. 그의 세계를 더 느껴보고 싶다면 들어가 할 건 다 있고 없을



옛날 추억의 장남감을 찾아서

지나쳐버린 나의 문방구

오늘도 동네 문구점은 시끌시끌하다. 문구점 앞에서 갖가지 신기술을 선보이며 팬이를 치는 아이들과 한켠에서 짬을 흘리며 미니카를 조립하는 아이들. 여자아이들은 문구점에 딱 하나 있는 미미인형에 마음을 빼앗겼다.

기억들 나시는지? 옛 추억이 방울방울 서려있는 그곳. 바로 문구점이다. 흔히들 문방구라 부르는 이곳. 이곳은 온갖 장남감들이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성지(聖地)이다.

우리가 추억의 향취를 좇아 찾아가는 곳은 서울 성동구. 성동초등학교를 찾아가던 중에 허름한 문구점을 마주쳤다. 밖에 주렁주렁 걸린 돼지저금통이며 가판에 펼쳐진 편지가 한껏 옛 기억을 새록새록 되살렸다. 좁은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파워레인저' 놀이 세트. 파워레인저 가면을 쓰고 게임을 휘두르면 무서울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건만. 문구점을 살펴보면 중 눈에 띈 이단필통. 이단필통은 꼭 옆에 연필꽂이가 붙어 있었지. '요즘 애들도 연필을 쓸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오래된 장남감을 찾았다는 질문에 주인 아주머니는 선반 깊은 곳에서 팬이 한 상자를 꺼내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지만 분명 그것은 분명 남자 아이들이 기를 쓰고 돌렸던 팬이었다. 팬이 위에 '88올림픽'이라는 글자가 누렇게 바랜 것을 보며 새삼 시간의 흐름에 놀랐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 장남감을 찾을 수 없었다. 90년대 팔리던 물건은 없었냐는 질문에 문구점 주인 아주머니는 "장소가 협소하고 찾는 이도 없어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 교체한다." 라고 대답하였다.

지금 대학생들은 옛 장남감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선경(철학1) 학생은 "문구점에 있던 스티커 인형을 사고 싶어 학교가 끝나면 바로 달려가곤 했다."라고 대답하였다. 권민욱(역사교육1) 학생은 "미니카 모터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 한달 동안 용돈을 모았다." 라고 대답하며 "결국 모터는 장만했지만 한달 후에는 아무도 미니카를 가지고 놀지 않더라." 고 웃어보였다.

추억을 더듬어가는 문방구 탐방. 옛추억은 이미 아스라이 사라져 흔적만 남아 있었다.

〈배〉
baessi03@dongguk.edu



봉제사 슈타이프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생산된 1억원짜리 '황금테디베어'

실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캐릭터 장남감 '펠리스 더 캣'

1850년대 일본에서 발매된 '소모킹 로봇' 양철 장남감

워너브라더스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벅스버니'

제26회 추계 명찰순례 참가자 모집

국화 향기가 마당 가득히 피어 오르는 가을의 길목에서 높고 푸르거만한 하늘을 보며 참된 나를 찾고 싶습니다.

덕을 숭상한다는 의미의 덕순례와 가야산이 인접한 덕순총림 수목사로 여려분을 초대합니다.

1. 순례일자 : 2007. 11. 23(금) ~ 11. 24(토) (1박2일)
2. 순례사찰 : 수덕사 (충남 예산군 소재)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40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4. 참가비 : 일만원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제공)
5. 출발일시 및 장소 : 2007. 11. 23(금) 오후 4시, 정각원 앞
6. 접수일자 : 2007. 11. 15(목) ~ 11. 22(목)
7. 문의 : 본관 3층 학생서비스팀 (☎2260-3043)

학 사 지 원 본 부

제5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원서 접수 : 2007. 11. 26 ~ 12. 5
○합격자 발표 : 2007. 12. 7(금)(인터넷 및 개별통지)
○등록 기간 : 2007. 12. 10(월) ~ 12. 14(금)
○수업 기간 : 2007. 12. 24(월) ~ 2008. 1. 25(금)
월, 화, 수, 목, 금 09:30 - 17:00

[교육과정]
○ 총 122시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최소 수업 시간 120시간)
○ 1주 6일(월~금), 1일 6시간(09:30 ~ 17:00)
○ 수업 내용(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한 교과과정)
- 한국어의 구조에 관한 지식 (30시간)
- 언어의 일반 원리 및 응용언어학에 관한 지식 (12시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 방법 (48시간)
-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12시간)
- 참관 및 실습 (20시간)
○담당 교수진
- 본교 국어교원, 국어교육, 외국어교육, 문화 전공 전임 교수
- 국내외 학부 및 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
-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교수

[등록 방법]
○전형료: 3만원(원서 접수 시 통장 입금)
○등록금: 100만원(교재비 포함)
* 본교 동문, 외국인, 전·현직 한국어 강사: 등록금 20% 할인(증명서 제출)
* **본교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 등록금 40% 할인(유학생, 수료생 포함)**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7-491785(한국어교원양성과정)
○접수 방법
- 전자우편 : iie@dongguk.edu
- 방문·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혜화관 1층)
(단,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음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02)2260-3472
홈페이지 http://iie.dongguk.edu 전자우편 iie@dongguk.edu

공학교육혁신센터 산학협력세미나 개최 안내

저희 공학교육혁신센터 산학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공학교육 혁신과 산학협력기반조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07년 11월 22일(목) 오후 4:00 ~ 6:00
2. 내 용 :
사 회 : 임종연 산학협력위원회 위원장(기계공학과 교수)
인사말 : 조성구 학장(정보산업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발표 1) 포항공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우수 사례 (포항공대 산학협력단 송완희 팀장)
발표 2) 친환경 캠퍼스조성을 위한 전기이론자 활용방안 (예교과 전공인 사장)

3. 장 소 : 원흥관 E103
4. 대 상 : 이공계열 전 교수 및 강사
5. 주 최 : 공학교육혁신센터
6. 문 의 : 공학교육혁신센터 (8835)
e-mail : ceed@dongguk.edu

무한동력 무한동국

나는 동국대학교 직원입니다

매사에 열정적인 직원으로서 그리고 직원들도 동국대 '동경회'의 회원으로서 동국대학교 다니는 일이 무척 즐겁습니다.

나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검도- 나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검도와 그 잠재력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있게 펼칠 수 있는 곳-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직원인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무한계발

동국대학교 직원채용

모집부문 | 행정직(일반, 건축, 외국어), 전산직, 사서직
지원방법 |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2007. 11. 17(토) - 11. 30(금) 18:00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직원채용공지 참조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since 1900

장충문화체육센터 독서실 이용안내

민해관 열람실공사로 인한 이용중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기간 중 학교인근의 장충문화체육센터 내 독서실의 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이용기간 : 2007.11.20(화) ~ 12.19(수)
2. 이용시간 : 월~토 06:00 ~ 22:00, 일요일 09:30 ~ 08:00
3. 이용목적 : 100석 (열람실과석 남·여 구분)
4. 이용방법 : 출입시 동국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무료 이용 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100석으로 제한한다.

중 앙 도 서 관

공학교육혁신센터